

양산보와 떠나는 소쇄원 VR 여행 '생생'

디지털 접목 '사유의 정원' 전
담빛예술창고 3월 31일까지
'소쇄원 48영' 주제·사진전도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주최



담양 담빛예술창고에서 열리는 '사유의 정원, 소쇄원을 거닐다'전은 미디어 파사드, VR 영상 등이 어우러진 체험형 전시다.

‘소쇄원을 즐기는 또 다른 방법.’
이번 소쇄원 여행에 동행한 이는 소쇄원
장건자인 조선시대 문인 양산보다. 정원
초입에 마주나온 그를 따라 물소리, 바람
소리 들리는 공간으로 들어섰다. 누정 광
풍각을 소개하던 그가 “올라가 잠시 쉬었
다 가세”라 청하고, 그를 따라 잠시 머문 공
간에선 소쇄원을 읊은 시편들을 만났다.
양산보와 떠나는 여행은 가상현실(VR)
콘텐츠다. 전시장에 마련된 HMD(Head
Mounted Display)를 머리에 쓰고 소쇄
원 가상 공간으로 들어가 흥미로운 체험을
했다.

담양 담빛예술창고에서 열고 있는 ‘남
도르네상스 인터랙티브 콘텐츠-사유의 정
원 소쇄원을 거닐다’전은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며 즐길 수 있는 전시다. 디지털 기
술을 통해 국내 최고의 원림이자 사림 문
화의 중심지인 소쇄원을 즐기는 색다른 기
획이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기획한 이번
전시는 호남의 대표적 별墅정원인 소쇄원
의 사계절 풍광과 소쇄원의 아름다움을 노
래한 하서 김인후의 ‘소쇄원 48영(瀟湘園
四十八影)’을 주제로 구성됐다.

전시는 모두 3개의 테마로 이뤄져 있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넓은 대청마루를 재현
해 놓은 공간이 보인다. 이곳에 앉아서
HMD를 쓰고 가상현실 VR 콘텐츠 ‘뜻으
로 이룬 공간, 소쇄원’ 작품을 감상할 수 있

다. 소쇄원 주요 공간을 360° 촬영한 실사
영상을 컴퓨터 그래픽을 결합해 제작한 작
품으로 시각과 청각으로 체험하며 양산보
와 함께 여행을 떠난다.

마우스를 조작하면 새소리, 물소리, 바
람소리, 낙엽소리와 함께 아름다운 시를
들어준다. 메인화면에서 ‘Warking VR’
을 클릭하면 11분 분량의 영상을 모두 즐
길 수 있으며 ‘Point VR’은 특정 공간을
골라 만날 수 있는 아이콘이다.

메인 전시는 ‘소쇄의 시(時)’다. 계절마
다 각기 다른 매력을 선보이는 소쇄원의
풍광과 ‘소쇄원 48영’을 사실적인 3D 그래
픽으로 구현한 대형 3면 미디어 파사드와
3개 층으로 이뤄진 시간바퀴 모양의 설치
물로 구성된 작품이다. 스크린에는 산수화
풍의 그림 속, 떨어지는 꽃잎 사이를 거니

는 선비의 모습과 함께 48영의 시구를 만
날 수 있는 ‘운율의 뜰’, 제월당·광풍각·대
봉대의 모습을 구현한 ‘정기의 뜰’ 등 3개
의 영상이 잔잔한 음악과 함께 펼쳐지며
신비로운 느낌을 전한다.

특히 ‘운율의 뜰’은 48영으로 표현된 소
쇄원을 시간바퀴와 함께 감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관람자가 시간바퀴를 돌려
48영의 그림을 선택하면 해당 작품과 공간
이 영상화면에 구현돼 흥미롭다. 설치작품
에 쓰인 그림과 사진은 한국화가 하성흠
작가와 사진작가 송창근·연갑주씨가 제공
했다. 그밖에 2층 전시장에서는 송창근 사
진작가 ‘소쇄원 48영 사진전’(2월17일
까지)도 함께 열린다.

전시를 관람한 후에는 담빛예술창고에
서 20분 거리에 있는 소쇄원에 직접 들러

그 풍광들을 누려도 좋다.

이번 콘텐츠는 전남도의 ‘남도문예르네
상스’ 사업에 따라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
원이 추진 중인 ‘전남3대 별墅정원 콘텐츠
개발 및 보급사업’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앞으로 강진 백운동 정원과 완도 부용동
정원 등과 연계한 콘텐츠가 추가로 개발될
예정이다. 또 이번에 제작된 소쇄원 콘텐
츠와 홍보영상을 한국가사문학관과 담양
관광정보센터에 상설 전시할 계획이다.

전시는 3월 31일까지 열리며 5월에는 국
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전시가 이어진다.
관람시간 오전 10시~오후 5시,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 설날 당일 휴관. 문의 061-
383-8241.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세계 박물관으로 떠나는 역사·문화여행

광주박물관대학 수강생 모집...3월 13일~6월 5일 진행

국립광주박물관(관장 김승희)은 제
30기 광주박물관대학을 개설해 수강생
을 모집한다.

오는 3월 13일부터 6월 5일(매주 수요일
오후 2시~4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박
물관대학의 주제는 ‘여행과 박물관’. 박
물관 과정을 통해 세계의 다양한 역사,
예술, 사회, 문화를 다양한 관점에서 재
조명할 예정이다. 또한 강의와 아울러 매
주 다큐도 상영된다.

첫 강좌는 3월 13일 배기동 국립중앙
박물관장이 ‘박물관으로 떠나는 시간여
행’을 강의한다. 이어 20일 정진국 미술
평론가 겸 사진작가가 ‘사진으로 남긴 여
행’을, 27일에는 정연복 중앙대 객원교
수가 ‘매혹의 박물관-루브르’를 이야기
한다. 4월 3일은 하계훈 미술평론가가
‘영국 그랜드 투어와 박물관’을 강의하고
10일에는 조현중 광주고고물연구소 이
사장이 ‘르네상스의 심장, 피렌체’를 주
제로 시민을 만난다.

4월 17일에는 ‘이집트 영웅의 탄생과
성장’의 저자 유성환 서울대 아시아언어
문명학부 강사가 ‘사막에서 일어난 문명
-이집트 룩소르’를 강의하며 24일은 송
지원 서울대 국악과 교수가 ‘옛 그림 속
으로 떠나는 음악여행’을 주제로 이야기
를 나눈다.

이어 5월 3일은 ‘결국, 남미’ 등의 저자
홍지선 여행 작가가 ‘카리브해의 숨은 보
석, 멕시코’를, 15일에는 이주영 서울대
교수가 ‘인도로 가는 길’을 강의한다. 22
일에는 김옥철 (주)안그라픽스 대표의
‘음식 풍경-여행을 맛보다!’가 펼쳐지고,
29일에는 유재원 한국외국어대학교 그리
스불가리아 명예교수가 ‘지중해, 신화와
역사의 땅-그리스, 터키’가 진행된다.

마지막 강의는 6월 5일 민병훈 전 국립
중앙박물관 아시아부장이 ‘열강의 실크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주도했던 피렌체의
우피치 미술관 전경.

로드 탐험과 수집 컬렉션의 현황-러시아
에르미타주박물관 중심’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이후 6월 중순에는 유럽지역 답사를
떠날 예정이다.

한편 3~5월까지 격주로 오후 4시 30분
부터 큐레이터와의 만남도 계획돼 있다.
각각의 주제는 ‘특별전 설명회-대한민국
건국 100년 명장면 연계’(3월 20일·최명
지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실), ‘박물
관 보존과학실 나들이’(4월 3일·이효선
학예연구실), ‘조선시대 물고기 그림-서
화실 연계’(4월 17일·윤종균 학예연구
실), ‘세계 도자문화 특별전 설명회-중
국 자주박물관 명품전’(5월 8·22일 김
영희 학예연구실) 등이다.

이번 과정의 접수는 현재 박물관 누리
집(gwangju.museum.go.kr)에서 진
행 중이며 신청수 250명이다. 수강료 10
만원. 자세한 내용은 국립광주박물관 누
리집과 전화(062-570-7068, 7077)로
확인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

‘ACC 브런치 콘서트’ 출연진 화려하네

코리안 챔버오케스트라·바이올리니스트 이경선 등 15팀
‘ACC 슈퍼 클래식’ 패키지 내일 오전 10시 추가 판매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유명 인사를 초
청해 강연과 공연을 함께 여는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의 ‘ACC 브런치 콘서트’ 출연진
이 최근 공개됐다. 올해는 광주세계수영선
수권대회를 기념해 5회를 추가, 총 15회로
구성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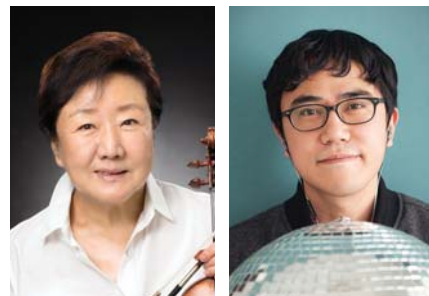
먼저 2월27일 열리는 첫 무대에는 바이
올리니스트 김남준과 그의 제자들로 이뤄
진 코리안 챔버오케스트라가 나선다. 3월
13일에는 피아니스트 한지호가 러시아 음

악을 연주하고 같은날 27일에는 ‘팬텀싱어
2’에서 우승한 뮤지컬 배우 배두훈이 퓨전
국악밴드 ‘AUX’와 협연 무대를 갖는다.

‘댄싱9’에 출연하며 주목받은 안무가 서
일영과 안남근은 무용수의 삶을 춤과 함께
펼치고(4월10일), 현대무용가 안은미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기획공연을 펼친다
(4월24일). 이어 탈북 피아니스트 김철수
의 ‘북한 가곡, 평화의 노래가 되다’(5월
29일)와 서울발레시어터의 ‘MOVES’

(6월12일), 플루티스트 최나경의 ‘러브 인
비엔나’(6월26일)가 무대를 꾸민다. 7월
10일에는 서희대 지휘자가 클래식 무대를
선보이고 같은 날 31일 ‘입과 손 스튜디오’
는 관객과 소통하는 소리판을 벌인다.

한국인 최초로 워싱턴 콩쿠르에서 우승
한 바이올리니스트 이경선(8월14일)과 반
도네오니스트 고상지(8월28일), 재즈 보
컬리스트 말로와 기타리스트 박주원의 협
연(9월25일), ‘배철수의 음악캠프’의 작
가 배순탁(10월30일)도 만날 수 있다. 마
지막 무대는 ‘아이디’ 등 유명 뮤지컬 무대
를 섭렵한 김호영이 토크 콘서트로 마무리
한다. 각 회 2만5000원.



김남준

배순탁

한편 매진된 ‘ACC 슈퍼 클래식’ 패키지
티켓은 관객의 요청으로 오는 31일 오전 10
시 60장 분량 추가분을 판매한다. ‘슈퍼 클
래식’은 2월16일 ‘라파우 블레하츠 & 김복
소리 듀오 콘서트’를 시작으로 무돌프 부흐
빈더, 리자드 용재 오닐 공연 등이 예정돼
있다. 문의 1899-5566.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임원식 광주문인협회장, 광주예총 회장 당선

광주예총 제10회 회장에 임원식(사
진) 광주문인협회장이 당선됐다.

임 선임회장은 29일 오후 3시 광주예
총회관에서 열린 2019정기총회를 겸한
선거에서 99표중 62표를 얻어 63% 득표
율로 한강수 후보를 크게 따돌리며 당선
됐다. 임 선임회장의 임기는 오는 2월 1
일부터 2023년 2월까지 만 4년이다.

문인 출신 인사가 광주예총 수장에 선
임된 것은 지난 2003년 광주예총이 창립
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향후 조직의
임원진과 산하협회장, 분과위원장의 교
체와 맞물리며 문화예술정책, 집행 등에
적잖은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임 회장은 “무엇보다 소통하는 예총,



투명한 예총, 일하
는 예총을 만들겠
다”며 “문화중심도
시 광주가 실질적
인 문화도시로 자
리매김할 수 있도
록 예총 차원의 지
원과 관심을 아끼

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학박사이자 철학박사인 임 회장은
“당신의 텃밭” 등 모두 15권의 작품집과
서평집·칼럼집을 펴냈으며 광주시인협
회장을 역임했다.

한편 감사에는 김미옥 씨와 최영태 씨
가 선임됐다. /박성천 기자 skypark@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광주,전남 시공회사

CMTECH

(주)씨엘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씨엘테크복합방수

유시름,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70~50% 할인 이벤트

“불만족시 1달 안에 100% 환불”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062)655-6544

062)362-3336

✓ 뽕뽕~ 울리지 않는 보청기

산수오거리지점

돌고래지점